



##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확대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으나 시중 상업은행의 예금금리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,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.

-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6월 7일 1년 만기 대출금리를 6.56%에서 6.31%로, 예금금리는 3.50%에서 3.25%로 각각 0.25%p씩 인하하였으나, 시중 상업은행의 예금금리는 반대로 높아짐.
- 시중 상업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한 것은 은행 간 경쟁 심화, 중앙은행의 예금금리 상한선 상향조정 (1.1배) 때문임.
  - 공상(工商) 중국(中國) 농업(農業)은행 등 중국의 5대 상업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(3.25%)의 1.077배인 3.5%까지 상승함.
  - 중소 지방은행인 영파(寧波)은행, 절상(浙商)은행 등의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의 1.1배인 3.575% 상승함.

■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추가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.

- 기준 금리를 더 인하하거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고려하자는 주장이 제기됨.
- 신화통신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증가하지 못해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함.
  - 중국 중앙은행의 대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확대하지 않을 것임.
  - 대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상업은행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불준비금, 환매, 채권 등에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대출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대출 공급 동기도 감소하여 역효과가 나타날 것임.
  -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절정책 성과도 훼손되어 경제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.

-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이 약하고 통화량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, 2012년 내 2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.
-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와 세금 감면과 같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됨.
  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살려 안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.

(Wall Street Journal, 신화통신 6/9)